

궁극을 향한 연구, 세상과 나누는 소통

- 안대회, 『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적 풍경』에 대한 서평 -

고 연 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1. 머리말

『궁극의 시학』은 중국의 명대와 청대 및 조선 후기에 걸쳐서 중국과 조선의 엘리트들이 예술적 최고경지의 결정(結晶)으로 공인하고 탐구했던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 24가지 시의 풍격)의 내용을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이십사시품」의 원문을 모두 번역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각 풍격에 관련된 시, 그림, 글씨 등을 풍부하게 첨가하여 「이십사시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이십사시품」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현대인에게 전달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 안대회(安大會)는 그의 박사논문에¹⁾에서부터 이미 한시비평에 관련된 추상적인 고전의 평어(評語)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해작업에 뛰어들었고, 그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이 분야에서 정진해온 터라,¹⁾ 한시비평 및 미학이론에 관한

1) 安大會, 「朝鮮後期 詩話의 史的 研究」,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한 국내의 정상급 수준의 위상을 차지하는 학자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이 의도한 만만치 않은 작업의 책임자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책은 매우 전문적인 연구역작이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독자들에게 고전시학 이론의 정수를 제공해주는 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이십사시품』의 문학적 내용과 함께 이를 조형이미지로 옮겨 놓은 이른바 ‘이십사시품도’라 할 만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십사시품』이 인기를 누리던 중국 청나라와 조선후기에, 유명한 화가들은 이를 그림으로 옮기도록 의뢰받았고, 청나라 황실의 화가들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화가도 24가지 시품의 내용을 24폭으로 그렸다. 『궁극의 시학』은 이러한 그림들을 곁들여 비교함으로써, 추상적인 시 풍격의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궁극의 시학』에서 저자가 시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즉 고전의 추상적 응축개념을 현대적 해석으로 전달하는 방식, 회화 및 판화를 두루 활용하여 비교한 방식, 시 풍격의 구체적 이해를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한시작품들의 저자가 선별하여 제공한 방식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삼가 평하면서, 이 책이 동아시아문학사 및 회화사 연구에 기여한 공헌 및 시화(詩畵) 교유의 관점에서 보여준 역할을 살펴 그 연구사적 가치를 기נם해보도록 하겠다.

2. 현대적 해석

저자는 『이십사시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는 데 특별한 고심을

1994); 이후로, 그의 대표저술과 연구논문은 詩畵 및 한시문 비평에 관련된 것이 많다. 대표적 저술만을 들자면, 安大會,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및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소명, 2000)가 있다. 이외 詩話 자체에 대한 연구, 漢詩詩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저술과 논문을 다수 남기고 있다.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십사시품』의 24개의 표제들을 보면 옹혼(雄渾), 충담(沖淡), 섬농(纖穠), 침착(沈著), 고고(高古), 전아(典雅), 세련(洗鍊), 경건(勁健), 기려(綺麗), 자연(自然), 함축(含蓄), 호방(豪放), 정신(精神), 진밀(縝密), 소야(疏野), 청기(淸奇), 위곡(委曲), 실경(實境), 비개(悲慨), 형용(形容), 초예(超詣), 표일(飄逸), 광달(曠達), 유동(流動) 등으로,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은 각각 4자의 시(詩) 12구로 풀이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응축적이고 심오하다. 제목부터 풀이까지 몹시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궁극의 시학』은 이러한 시품에 대하여 그 목차에서부터 선명한 현대감각을 제시하고 있다. ‘영웅의 품격’(옹혼), ‘선비의 담백한 미학’(충담), ‘여인의 향기’(섬농), ‘내성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침착), ‘높고 예스러운’(고고), ‘명사의 풍류’(전아), ‘단련하고 정제하라’(세련), ‘힘이 넘치는 시’(경건), ‘화려한 인생의 노래’(기려),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다’(자연), ‘말하지 않고 말한 시’(함축), ‘신화적 세계에서 노니는 원시의 미학’(호방), ‘사물의 핵심을 싱싱하게 표현하다’(정신), ‘치밀한 구성과 맥락’(진밀), ‘거침과 시골티의 미학’(소야), ‘청결하고 기이함’(청기), ‘파란과 곡절’(위곡), ‘진실과 즉흥의 미학’(실경), ‘비극적 파토스의 미학’(비개),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형용), ‘초월을 꿈꾸다’(초예), ‘표연히 날다’(표일), ‘활달하게 살다’(광달), ‘흘러 움직이다’(유동) 등이 그것이다. 정제된 추상개념들에 대한 이런 식의 명쾌한 풀이는, 발랄하고 용감한 의역(意譯)의 차원마저 넘어서는 정도이다. 이러한 풀이는 한시 미학에 대한 연구의 숙성과 24개 시품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및 현대적 언어감각의 조화가 기반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의 목차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이십사시품’의 개념 풀이는 근대 이전의 미학세계로 현대독자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 준다.

『이십사시품』은 위와 같은 두 글자의 표제어 아래 각각 4자시 12수 즉 총 48자의 내용이 있다. 표제어도 추상적이지만 48자의 내용도 함축적이

며 암시적이라, 오늘날의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이 역시 직역의 단계를 훌쩍 넘어서야 한다. 이 책은 그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한 예로, ‘경건’의 원문 첫머리 “行神如空, 行氣如虹”(정신의 운행이 공허 같고, 기운의 운행이 무지개 같다)를, 저자는 “허공을 날듯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지개가 떠오르듯 기운을 쓴다”라고 번역하였고, ‘경건’의 말미 “斯之以實 御之以終”(실상으로 임하고, 끝까지 제어한다)는 “작품이 진실을 충분히 지니도록, 끝까지 넘치는 힘으로 통제한다”고 번역하였다(p. 236). 이러한 번역은, 저자가 원문의 동사와 목적어를 살펴 주어를 판단한 뒤 그 의미의 지향점을 파악하여 번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이다. 저자의 번역문만 읽으면 별 어려움 없이 시구의 내용들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십사시품』에 대한 현대중국학자들의 주석서를 망라하여, 이러한 번역에 이른 저자의 면밀한 주석(註釋)의 공개이다. 이 책의 성격상 주석을 모두 드러내면 몹시 난삽해질 우려가 있으나, 이만한 번역에 수반되었을 주석서 별본이 함께 나온다면 학술적 가치와 공헌은 매우 높을 것이라 본다.

3. 한국 학자로서의 이해

『이십사시품』은 중국에서 그들의 문학적·예술적 전통을 기반으로 생산한 미학범주지만, 『궁극의 시학』에서 저자는 각 품격의 예를 중국시인의 작품 뿐 아니라 고려 및 조선시대의 한시, 필요하면 근현대 작가의 시구도 들어가며, 우리 시문학의 품격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작업을 시종 견지하였다. 첫 번째 품격 ‘웅혼’ 즉 영웅의 품격과 기백의 장을 펼치면, ‘웅혼’장 첫 머리에서 저자는 조선 중기의 학자 조식(曹植, 1501~1572)이 쓴 『천왕봉』을 읊어줌으로써 독자를 웅혼의 품격으로 성큼 끌어들이는다. “보라, 천 섬의 쇠북은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는

다. 만고의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로 번역하여 소개한 조식 시의 장중한 기백은 지리산의 묵직한 흙산을 떠올리게 하면서 시인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로써 독자는 영웅스런 심성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뿐 아니라 조식 시의 한 측면을 단번에 감지하고, 시적 미감의 울림을 경험한다. 두 번째의 품격 ‘충담 즉 선비의 담백한 미학’에서는 충담의 경지를 높이 보았던 학자 이이(李珣)를 예로 들었다. 저자가 예시한 이이의 시에서, 이이는 산 속을 헤매다가 차 끊이는 연기자락을 만나고 있다. 독자들은 시인과 함께 안도하며 ‘칭답’한 산 속 경지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 스물 넷의 미학범주로 저자가 소개되는 한국 한시들의 소개는 독자에게 적절한 흥미를 유지시켜준다. ‘위곡’ 즉 파란과 곡절의 예로는 특이하게도 『평양창기사』를 들었다. 이 시는 기생의 외로움을 도형의 칸 위에 돌려가며 적어 넣어 도표로 만든 것으로(p. 477), 얼핏 보아 읽을 수조차 없으니 곡절이 많은 작품이란 뜻이다.

24개의 품격에 해당하는 시를 조선의 시에서 찾은 데는 한국학자로서의 자존적 책무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국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딱 맞는 중국시를 예로 들면 저자의 품이 한결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 중에 적절한 예가 될 명품의 한시를 골라 소개하는 이러한 작업은, 한시 연구의 오랜 내공과 안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세 번째의 품격 ‘섬농, 여인의 향기’에 대하여 저자는 조선시대 사대부학자들의 한시 중에서 그 예를 찾기가 몹시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특별한 섬세한 감각을 자랑하는 19세기 시인 신위(申緯)의 시를 찾아냈다. 섬농의 다음 품격인 ‘침착’은 내성적이고 비관적 성향이라 풀이하고, 이광사(李匡師)의 유배시를 예로 들었다. 아내는 이미 자결했고 자신은 유배지에서 죽어가던 때 이광사는 가을날 등불 아래 고향을 그리며 “정 들고 친한 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물고기와 새만이 허물없이 다가온다”고 읊었다. 시품 속 ‘침착’이 현대어의 ‘침착’과는 사뭇 다른 경지였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의 우리 한시 탐색과 선별의 노력으로 독자들은 우리 한시의

다양한 풍격은 물론 그 속에 얽힌 역사와 사연까지 함께 향유하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이렇듯 시품의 품격어를 미적 범주로 정하고 작품으로 예를 들어 풀이하는 서술방식은 근대 이전의 문학비평방법의 하나였던 ‘시화’(詩話)류의 서술법과 그대로 상통한다. 까다로운 비평어를 설명하고자 주관적인 작품선정과 채지 있는 해설이 가미되는 서술방식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그가 오래 연구하여 익숙한 시화 저술의 고전적 방식을 십분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운용하면서, 시화 읽기가 주는 재미의 정수를 전달해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4. 「이십사시품」의 정체 탐색

흥미롭고 기이한 일은,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십사시품」의 저자와 제작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이름은 근대기까지 당나라의 사공도(司空圖, 837~908)라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사공도이십사품’이라고 의심 없이 칭해져 왔다. 「이십사시품」이 사공도의 작품이 아니며 후대의 어느 시점에 등장하여 사공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1995년에 이르러 중국의 학계에서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의 시학』을 펴낸 안대회는 일찍이 이 문제에 접근하여 새로운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이 논의에 관여하고 있었다. 안대회는 2000년에 조선시대 전반기의 학자 윤춘년(尹春年 1524~1567)의 간행물을 발굴하여 소개하면서, 윤춘년이 16세기 중반에 출판한 『시가일지』(詩歌一指)와 『목천금어』(木天禁語)에 「이십사시품」이 실려 있었던 점을 세상에 알렸다.²⁾ 조선시대 윤춘년의 간행서적에 실린 「이십사시품」의 존재는 그 자

체로 『이십사시품』의 유행시기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이로 미루어 그 당시 중국학자들이 『이십사시품』의 실제적 저자가 명나라 학자라는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고 제작상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안대회의 견해에 따르면, 『이십사시품』의 저자는 남송대에서 원대에 걸친 누군가이며, 오늘날 중국학계의 장젠(張健)이 제기한 원나라 우집(虞集)의 제작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기에 작가미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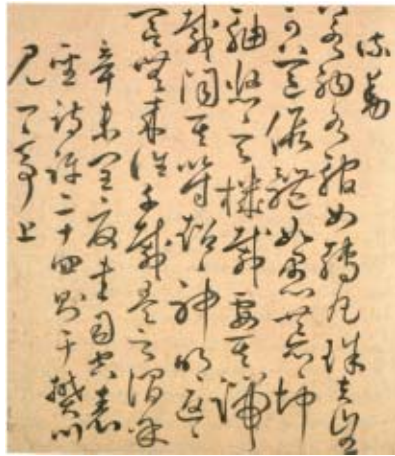
작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위력을 발휘하는 문제작의 경우, 원작자의 존재를 밝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연과 의미가 그 안에 도사리기 마련이다. 문학사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미술사를 보면 특정작가의 모사품들이 한 시절 유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작가가 사라진 모사품들이지만 담당했던 문화적 가치는 오히려 뚜렷하다. 문학사에 등장하는 문제작의 역할도 문학사의 이해에 새로운 탄력소로 의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십사시품』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완전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이십사시품』이 누린 한 시절의 위상을 암묵적으로 옹변하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궁극의 시학』으로 24시품을 화려하게 펼쳐 보인 저자의 마음 속에 이러한 판단이 묵직하게 자리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십사시품』 외에도 은근한 표절처럼 반복되는 시화의 양상들에 대하여, 저자는 문화사적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고 발표하는 작업을 앞으로 수행해주어도 좋을 것 같다.

2) 안대회, 『尹春年과 詩話文話』(소명, 2000);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李春桃, 『『二十四詩品』 接受史』(復旦大博士學位論文, 2005)가 종합적이며; 우리 학계에서도 지속적 연구가 2000년대에 이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 내용은, 『궁극의 시학』 pp. 680-690에 자세하다.

5. 시각자료를 활용한 언어문학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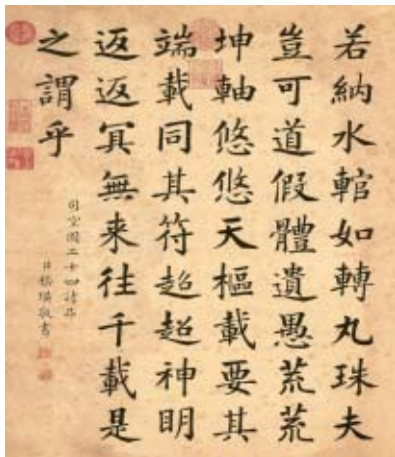
[그림 1] 정선(鄭敎), 《사공도시품첩》(司空圖詩品帖), 〈유동〉(流動), 우면, 1749년



[그림 2] 이광사(李匡師), 《사공도시품첩》(司空圖詩品帖), 〈유동〉(流動), 좌면



[그림 3] 반시직(潘昶), 《사공도이십사시품도》(司空圖二十四詩品圖), 〈유동〉, 우면



[그림 4] 혜황(裨瑋), 《사공도이십사시품도》(司空圖二十四詩品圖), 〈유동〉, 좌면

『궁극의 시학』이 보여주는 특성 중 유별난 특성이라면, 총 4종의 화첩(畵帖) 시리즈를 모두 입수하여 화려한 칼라도판으로 보여준 점이다. 이 책에 실린 채색도들은 조선후기 산수화가 정선(鄭敼, 1676~1759)의 필로 전하는 《사공도시품첩》(司空圖詩品帖)과 청나라 화가 반시직(潘是稷)이 그린 《사공도이십사시품도》(司空圖二十四詩品圖) 및 장부(張溥)가 그린 《화어제시의》(畫御製詩意) 등이다. 그리고 판화도로 그려진 제내방(諸乃方)의 『시품화보』(詩品畵譜)가 함께 실렸다. 책 속에 옮겨놓은 화려한 도판들은 영상문화에 친숙한 현대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고전 미학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시각자료와 비교하여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각자료와의 비교연구는 문학연구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타 예술과의 상호조명’에 든다. 이러한 문학연구방법론이 시도되는 초기(1960년대)에는 문학의 본질적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려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면서 방법론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으면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문학과 회화라는 이질적 장르를 비교하는 어려움 때문에 비교의 합리적 방법론 탐색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미학적 추상개념과 이것을 이미지로 구체화시킨 회화작품을 직접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화가 문학을 표현하는 가장 어려운 차원의 창의적 양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조선과 중국의 조형 이미지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각 풍격의 언어적 풀이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시절 이해된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면서 비교적 안정감 있는 비교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시품이 보여주는 시적 경지와 이를 그린 회화의 경지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관점은 이 책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자가 문학연구자이고 비교하는 도판은 문학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자의 태도로 인해 시종 화가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칭송하는 온건

한 방식으로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다. 사실상, 각 시풍격의 추상개념을 그린 조형이미지들의 차이 속에는 화가의 개성적 차이 뿐 아니라 지역적 차이가 있다. 조선화가 정선의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중국의복을 입었으니, 정선이 그린 자연풍경도 상상의 표현이거나 이전 중국문학작품 시 의도의 활용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자는 중국과 한국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이런 역사적 이미지의 수용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여러 화가들의 보여주는 조형이미지의 차이는 시로 읊어진 문구 중 어떤 구절을 택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하나의 추상풍격을 설명하는 시 한수에는 여러 가지 연상이미지들을 동시에 혹은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한 폭의 그림은 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전달하게 된다. 이런 경우 그림은 시적 설명의 풍부함이나 중의적 묘미를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십시시품』의 회화화는, 농밀하고 함축적인 문학작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행간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지만, 문학연구 자로서의 저자는 다른 장르에서 모셔온 손님을 대우하는 양 그림을 시종 존중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이 그림들을 상세하게 해설한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의 화가 정선이 그렸다고 하는 《사공도시품첩》의 내용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고 화첩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해설이 없는 상황이었다.³⁾ 게다가 이 화첩의 문화사적·회화사적 의미는, 정선이라는 유명한 산수화가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그려진 『이십시시품』의 회화화(繪畫化)라는 측면에 있기에 그 자

3) 유준영, 이종호, 「鄭澈의 <司空圖詩品帖> 연구」, 『文藝研究』 2001년 1기 (중국예술연구원); 유미나, 「중국시문을 주제로 한 조선후기 서화합벽첩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소개되었고; 이해경, 「시론과 고사를 그림으로(I)」, 『겸재 정선』(국립중앙박물관, 2009)가 미술사적 견지에서 정선의 《사공도시품첩》을 해석하였으나, 시론과의 연관성 논의는 소략했다.

체로 문화사적 가치를 가진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문학사와 어깨를 겨루며 문학미학의 옛센스를 조형이미지로 옮겨낸 창조적 역작이기 때문이다. 《사공도시품첩》은 정선의 그림 22폭과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베낀 「이십사품」 중 18면이 함께 낱폭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정선의 그림들을 고화질의 도판으로 제공하고 해설하였으며, 이광사의 글씨도 한 점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조선 후기 회화사 및 서예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회화사 연구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청나라 화가들의 고품격 회화작품들과 판화를 두루 찾아 보여준 점도 커다란 공헌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기를 한 독자의 제보로 중국작품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여 무명의 독자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지만, 청나라 화가들의 작품 전체를 입수하여 출판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저자가 이를 입수하고 출간하기까지 해외의 박물관과 접촉한 수고도 치하할 만하다.

6. 한국문예사에서의 「이십사시품」

『궁극의 시학』에서 저자는 스물네 개의 추상적 풍격개념을 독자들이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오가며 적절한 시문의 예를 찾아내어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술이 일반의 독자들에게 주는 감동적 효력은 앞서도 거론한 바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십사시품」은 조선 전기나 중기에 제시되었던 시품의 양상에 비하여 세밀하고 감각적 특성이 농후한 미학이기에 전 시대를 아울러 진단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것이 독자들에게 모종의 오해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십사시품」의 시대적 특성에 대하여는 한시비평의 전문

가인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십사시품』의 이러한 특성으로 당나라나 북송대에 생산된 품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또한 사공도의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이십사시품』의 관점으로 한국시문학 전체를 횡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십사시품』을 고전미학의 정수라고 포장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십사시품』이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이 희석되어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따로 부록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19세기 문학사 나아가 예술사에서 『이십사시품』이 어떻게 창작에 관여하였는지의 문제에는 면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 책의 부록에 마련된 『이십사시품』과 18, 19세기 조선의 사대부 문예』는 조선의 문단으로 『이십사시품』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폈다(pp. 691-705). 임란 이전에 윤춘년의 간행물로 소개될 때 ‘이십사시품’은 사공도작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널리 유포되지도 않았다는 사실, 18세기 이후로 ‘사공도이십사시품’으로 소개되어 특히 19세기의 신위, 김정희(金正喜), 조희룡(趙熙龍) 권돈인(權敦仁) 등에게 각별한 애호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정확한 문헌 증거로 소개하였다. 다음 단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19세기의 시문학과 그림문예의 내면적 미감과 조형감각에 『이십사시품』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즉 나아가 이전시대와 차별되는 미학적 경지를 이루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점에 대한 연구도 저자의 과제일 듯하다. 이러한 접근은 19세기 문예미학의 일면 혹은 정수를 해설해 나가는 데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 맺으며 남기는 말

『궁극의 시학』은 조선 후기로 전달되어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십사시품』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전달하고 회화문화와 연결된 양상까지 보여준 책이다. 이 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회화작품들은 회화사의 연구로 진전될 것이고, 19세기 문학사 및 문예사의 연구도 새로운 빛깔의 활력을 받을 것이다.

일반의 독자들에게 조준된 집필은 이 책의 장점이다. 현대 감각이 가미된 번역, 저자의 주관적인 시 선정과 해설의 묘미, 그리고 조형이미지의 확보와 제시 등이 이러한 장점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집필방법은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 분야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연구가 가장 참신한 연구와 방법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연구의 시류에 따르기보다는 한시비평이라는 한문학영역의 정수 즉 지극히 비현대적이고 고독한 분야에 몰입하여 왔다. 사실상 이 분야는 한문학연구자라면 한 번쯤은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게 되는 어려운 영역이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궁극의 시학’이라고 붙인 데서 그 스스로 추구한 연구의 지향점이 어리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도전과 오랜 노력이 현대인과 소통하는 이 같은 작업으로 이행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책을 살피며 몹시 아쉬운 점을 여기에 덧붙여 두고자 한다. 이 책은 중요한 회화와 판화의 도판들을 입수하여 보여주면서도 작품의 크기나 재질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림의 소개에서 아쉬운 점이라 보완이 되면 좋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색인(索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독자와 연구자를 불편하게 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예로 제시한 중국과 한국의 시인들 이름과 선정한 시의 제목에 대한 색인은, 이 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가 어떠한 작가들을 예로 들어 활용하였는지, 혹

은 어느 특정작가가 선정되었는지 혹은 아닌지, 혹은 그가 어느 항목으로 선정되었는지, 책에서 읽으며 감동받은 시가 스물네 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찾고자 할 때 색인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본문이 650면에 이르기 때문에 색인까지 붙여서 양을 늘이는 부담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책의 분량이 곧 색인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 책의 다음 썬에는 최소한 중국시인과 한국시인의 명단에 대한 색인이라도 꼭 첨가될 것을 기대한다.

이 책은 본격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연구서이자 학술서면서 그 모습을 살짝 감추고 흥미진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왔다. 이 책은 한 시대 연구자가 그 시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전범으로 남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